

(2021 성경칼럼 4번째 : 정상과 비 정상 의 차이)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만난 ‘니고데모’ 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요 학식과 재물이 부족하지 않을만큼 충분한 사람이었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쟁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이 누군지 상세히 알아 보기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 (1:19,24) 그때 요한은 니고데모가 보낸 사람들에게 ‘네 뒤에 오는 이’ 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그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임을 알렸다. 그리고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1:26,27,33,34)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 온 것은 우연한 호기심에서 발생된 일이 아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가 왜 하필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 온 동기나 배경따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아이러니컬 한 것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정말 많았다. 니고데모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살펴 보아라! 그들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섯번째 남자와 살고있는 4장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질 것을 다 누리며 살아도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왕의 신하나,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동안 누워있던 병자들이 정상적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진 것 많고 교육을 잘 받고 무엇보다 교양과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실 세상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보다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 뜻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비정상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보다 매우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은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원’ 은 필수가 아니라 ‘생명’ 이다. 그들에게 구원은 옵션이 될수 없다. 그러나 온전하

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구원’은 생명이 아니라 옵션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믿기 더 힘들다는 뜻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야 할 매우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병들고 망가진 자들이 아니라 자신은 가장 바르고 정상적이고 온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두 ‘니고데모’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건강한자는 의원이 옵션일 뿐이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생명이란 뜻이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정말 죄인은 정상적이라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마태 9:12-13)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하나님도 잘 알고 교양있고 체면차리며 사는 정상인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 세계안에는 무엇이 빠져 버린 알맹이 없는 비 정상적인 껍데기란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